

김부겸은 뚫었지만, 민주당은 못 넘었다

- 대구 +21.0%p 투표율 상승이 말하는 보수 위기감

구분	결과
광역단체장	민주 45.05% vs. 국힘 53.92% (국힘 +8.87%p)
광역비례	민주 33.31% vs. 국힘 60.69% (국힘 +27.38%p)
분할 투표	민주 단체장 +11.74%p / 국힘 단체장 -6.77%p
투표율 상승폭	+21.0%p (전국 최대)

● 대구의 특이 패턴: 거의 20% 이상 차이난 정당과 후보의 지지율

대구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. 광역비례에서는 국힘이 +27.38%p로 압도했지만, 광역단체장에서는 격차가 +8.87%p로 줄었다. 민주 단체장 후보가 비례 대비 +11.74%p나 더 받은 반면, 국힘 단체장 후보는 비례 대비 -6.77%p 빠졌다. 16개 시도 중 양당 모두 가장 큰 변동을 보였다.

이는 대구에서 후보 변수가 정당 충성도를 흔들었음을 의미한다. 보수의 본진에서도 인물 변수는 작동한다. 투표율 +21.0%p는 전국 최대인데, 이는 순수 보수 위기감 결집의 결과다. 보수 비동원자의 복귀와 민주 지지층의 총력전이 함께 만들어낸 수치다.

● 본투표 +17.19%p: 전국 최대의 위기감 폭발

지표	2022(8회)	2026(9회)	변화
본투표율	-	-	+17.19%p (전국 최대)
사전점유율 (사전/전체)	34.48%	29.20%	-5.28%p (전국 2위 하락폭)
본투표 절대 증가	-	-	+353,731표
사전투표 절대 증가	-	-	+79,958표
본투표 증가 /사전증가 배수	-	-	4.4배

대구의 본투표율 상승폭(+17.19%p)은 16개 시도 가운데 최대이며, 동시에 사전투표의 점유율은 -5.28%p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하락을 보였다. 이는 사전투표 단계에서는 결집이 약했다가, 사전투표율 보도, 민주 우세 분위기, 기초자치단체장까지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, 혹은 대구까지 민주당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 민주당 독식 공포가 본투표 당일 한꺼번에 폭발했음을 의미한다. 본투표 증가분은 사전투표 증가분의 4.4배에 달했다.

● 대구 시사점: 김부겸 모델은 어디까지 통하나

대구는 동원형 표심의 한계와 견제 심리의 결정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이다.

- **민주당 관점:** 김부겸이라는 최강 후보 카드로 광역에서 +11.74%p의 인물 프리미엄을 만들었지만, 그 프리미엄은 구청장 후보 레벨에서 -10.12%p로 완전히 소멸했다. “좋은 후보 한 명”으로 대구를 깰 수는 없다 — 당 중앙정치에서의 절제된 메시지와 운영이 동반되지 않으면, 후보 자산은 견제 심리에 의해 철저히 무력화된다.
- **국민의힘 관점:** 위기감으로 +17.19%p나 동원했음에도 광역 격차는 +8.87%p에 그쳤다(인물 변수에서 -6.77%p 빠짐). 위기감 동원은 자리를 지키지만 그 자리를 확장하지는 못한다. 다음 선거에서 진짜 다수를 계속 유지하려면 위기감을 넘어선 적극적 의제가 필요하다.
- **공통 합의:** 대구의 +17.19%p 본투표 폭발은 “사전투표 결과와 중앙정치에서의 비호감, 견제심리”가 결합할 때 동원되지 않았던 보수 지지층이 얼마나 빠르게 결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. 이는 향후 모든 선거에서 사전투표 이후 본투표까지의 3일이 결정적 동학(dynamic) 구간임을 시사한다.

공공정책·정치컨설팅 그룹 원지코리아컨설팅

대통령 PI를 수행한 전략컨설팅의 강자 / 가장 정확한 조사
지자체, 공공기관 정책홍보컨설팅, 빅데이터 분석, 여론조사, 선거컨설팅
주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29, 정우빌딩 9층(여의도동 13-25)